

꽃샘, 잎샘에 설늬는이가  
얼어죽는다는 요즈음 추위를  
느낄새없이 바쁜 사람들이  
있다. 대학 및 전문학교  
입학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  
이다.

해마다 그러하듯이 2월말  
부터 3월초면 전국의 각급  
대학들과 전문학교들에서는  
입학시험을 치는 수험생들  
로 붐빈다. 이 기간에 수험  
생들은 학창시절의 꿈과 포  
부를 이룰 더없는 기회를 놓  
치지 않으려 고도의 긴장감  
을 가지고 평소에 쌓아온 학  
과실력을 발휘해간다.

이들은 모두 실력검토를  
위한 예비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된 고급중학

## 꽃샘추위로 열게 하는 입학시험 열기

교 졸업반학생들이다. 공화  
국에는 전국의 모든 고급중  
학교 졸업반학생들을 대상으  
로 상급학교추천을 위한 예  
비시험을 치는 제도가 있다.  
이 예비시험에서 합격된 학  
생들은 대학 및 전문학교 입  
학시험이라는 관문을 거처야  
한다. 입학기준은 철저히 실  
력주의이다.

김일성종합대학의 한 일  
군은 발전하는 현실에 맞

게 일부 대학들에서 컴퓨터  
에 의한 시험방법을 도입하  
였다고 하면서 《컴퓨터에  
의한 시험은 필답의 방법으  
로 시험을 치던 종전에 비  
해 훨씬 많은 문제를 제시  
하고 해당하는 답을 컴퓨터에  
선택하거나 표시하는 방법  
으로 시험을 치기때문에 수  
험생들이 폭넓고 다방면적  
인 지식과 창조적인 응용능  
력을 가지고있지 않으면 안

된다. 한마디로 짧은 시간  
에 수험생들의 실력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수 있다.》  
고 말하였다.

어쨌든 입학시험에서 통  
과되어야 대학에 들어갈수  
있는것만중 수험생들의 열  
의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몇달전부터 밤잠을 잊고  
충분히 시험공부를 하고도  
부족한지 시험장에 들어가  
기 직전까지도 펼쳐든 책에  
서 눈길을 떼지 못하는 수  
험생들, 남보다 답을 하나라  
도 더 찾기 위해 종이 울  
릴 때까지도 자리에서 일어  
설념을 앓는 수험생들이 적  
지 않다.

시험을 치고 나오는 수험  
생들의 얼굴표정도 천태만상  
이다. 심골병굴 웃음을 감추  
지 못하는가 하면 머리를 긁  
적이며 아쉬운 표정을 짓는  
측들도 있다.

결과가마 더 뛴는다고 수  
험생들 못지않게 안절부절  
못해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들의 부모친척들이다. 시험  
을 치고 나온 자식들을 만  
나기 바쁘게 부모들이 던지  
는 첫 말은 《시험을 잘 쳤  
니?》 하는 질문이다. 그속

에서 손자인듯싶은 수험생의  
등을 대견하게 어루스는 할  
머니며 아들과 머리 맞대고  
시험에 나왔던 문제를 같이  
풀어보는 어머니의 모습도  
볼수 있다.

수험생이나 부모들이나  
강렬한 열망은 대학에 입학  
하는것이다. 그렇듯 열렬한  
지향은 어디에 뿌리를 둔것  
일가?

김일성종합대학 컴퓨터  
과학대학에서 만난 수험생  
김영일은 대학에 입학하면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최  
첨단프로그램들을 척척 개발  
해내는 20대 박사가 되고싶  
다.》고 말하였다.

김책공업종합대학 기계  
과학기술대학에서 응시  
한 박금철은 기계공학연구  
사인 아버지의 뒤를 이어  
CNC화, 무인화설현에 이바  
지하는 현대적인 기계설비  
들을 마음먹은대로 만들어  
내는것이 학창시절부터 품  
어온 꿈이라면서 시험에서  
꼭 합격되었으면 하는 소망  
을 피력하였다.

지망하는 대학과 전공분  
야는 각이해도 이들의 꿈과  
희망은 하나같았다. 꼭 대  
학에 입학하여 사회주의강  
성국가건설을 위한 최첨단  
들의 1번수로 준비해갈  
이들의 빨간색 열의는 이른  
봄의 쌀쌀한 추위로 잊게  
했다.

본시기자 홍범식

## 민족의 자랑-평양민속공원을 찾아서

## 경천사다층탑

평양민속공원에 는 고려시  
기의 유적으로서 1:2의 비  
율로 세워진 경천사다층탑도  
있다.  
원래 이 탑은 고려말기인  
1348년 개성시 개풍군 광수  
리의 부소산 남쪽기슭에 있  
는 경천사에 세워졌던것이  
다. 고려시기의 회귀하고 아  
름다운 루각장학형의 대리석  
탑으로 알려진 이 탑의 높  
이는 13.5m이고 3층으로 된  
밀단과 탑몸, 탑머리로 되  
어있다. 밀단 한번의 길이  
는 3.12m이다.

경천사다층탑은 전반적으  
로 비례가 잘 맞고 우로 솟아  
오르는 기분을 강하게 준다.  
밀단에서는 수평이 강조되며  
탑의 안정감을 돋우고있으며  
아래 3층은 중간돌출부가 있  
는 4각평면에 어울리게 복잡  
한 지붕구조를 가지면서도  
세층의 정면 지붕형태를 서  
로 다르게 처리하였다.

경천사다층탑은 고려시기  
돌탑의 특징을 고스란히 간  
직하고있다. 층수를 많이 하  
면서 높이 솟아오르는 모습,  
탑의 평면을 4각 또는 다각  
형으로 하는 수법 같은것은  
고려시기의 탑들이 보현사의  
탑들에서 흔히 볼수 있는것  
이다.

경천사다층탑은 강용이라  
는 사람의 지휘밑에 고려의  
기술자들이 만든것이라고 한  
다. 서울 탑골공원에 있는  
원각사탑과 함께 우리 나라  
에서 가장 화려한 탑가운데  
하나로 되고있는 이 탑은 다  
층목조건물처럼 섬세하게 돌  
을 쪼아 탑을 만들고 거기에  
다양한 조각을 한것으로 하  
여 고려의 건축술과 조각술  
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국  
보적전국유산이라고 말할수

있다.  
원래 개성  
에 있던 이  
탑이 현재는  
남조선의 룡  
산에 있다.  
일제가 략탈  
하여 갔던것  
을 도로 찾  
아온것이다.  
남 조 선  
에서 출판  
된 《고려  
의 황도 개  
경》(2002년  
출판, 249페  
지) 이 라는  
책에는 《일  
제 강점 시기  
개성은 식민  
지수탈의 전  
형을 보여주  
는 곳이 되  
세층의 정면  
지붕형태를  
서로 다르게  
처리하였다.  
경천사다층  
탑은 고려시  
기 돌탑의 특  
징을 고스란  
히 간직하고  
있다. 층수를  
많이 하면서  
높이 솟아오  
르는 모습,  
탑의 평면을  
4각 또는 다  
각형으로 하  
는 수법 같은  
것은 고려시  
기의 탑들이  
보현사의 탑  
들에서 흔히  
볼수 있는것  
이다.



중이 《하사》 한것이라고 하  
였지만 그 거짓말이 드러나  
면서 어쩔수 없이 반환하지  
나다가 마뜨이기는 이 탑이  
색 마음에 들었는지 불법으  
로 해체해서 반출했다. 이후  
다시 반환되기는 했지만 그  
과정에 많이 손상된채 경북  
궁 그 정전회랑에 방치되었  
다. 이 탑이 그나마 제모습  
으로 다시 설수 있게 된것은  
수십년이 흐른 후였다.》고  
서술되어있다.

이 책에도 서술되어있는  
바와 같이 일본대신 다나까  
는 1907년 이 경천사다층탑  
을 분해하여 자기 집 마당에  
가져다 포장도 풀지 못하고  
방치해두었다. 처음에는 고

본시기자 고영숙

## 건강에 유익한 장수식품 몇가지

◎ 죽은 쑤는 과정에 영양  
분이 충분히 우려나며 소화  
와 흡수가 잘되므로 입맛이  
없거나 몸이 허약한 사람들  
이 먹으면 좋다.

◎ 미역은 열량이 적은 반  
면에 교질과 광물질이 풍부  
한것으로 하여 소홀히 할수  
없는 건강식품으로 된다. 미  
역은 식초와 잘 어울리며 음식  
으로 가공할 때 식초를 리  
용하는것이 좋다.

◎ 메밀에 들어있는 항산  
화물질은 피속의 지방화합물  
을 줄이고 피질의 탄성을 높이  
주며 피가 응고되는것을 방

로 유지되고 최대한의 효과  
를 볼수 있다.

◎ 미역은 열량이 적은 반  
면에 교질과 광물질이 풍부  
한것으로 하여 소홀히 할수  
없는 건강식품으로 된다. 미  
역은 식초와 잘 어울리며 음식  
으로 가공할 때 식초를 리  
용하는것이 좋다.

◎ 메밀에 들어있는 항산  
화물질은 피속의 지방화합물  
을 줄이고 피질의 탄성을 높이  
주며 피가 응고되는것을 방

지하는 작용을 한다. 메밀  
은 훌륭한 심장보호식품으  
로 된다.

메밀은 혈압을 낮추고 잠  
이 잘 오게 하는 작용도 한  
다. 메밀은 보통 흰쌀에 비  
해 섬유소함량이 6배나 많기  
때문에 내장을 효과적으로  
청소해낼수 있다. 메밀은 가  
루음식을 만들어 먹어도 좋  
고 쌀과 함께 밥을 짓거나  
죽을 쑤어 먹어도 좋다.

본시기자

## 물을 너무 오래 끓여 마시지 말아야

물을 끓여서 마시는것은  
물에 들어있는 해로운 미  
생물을 죽이고 폐놀류와 같  
은 휘발성독성물질을 고온에  
서 휘발시켜 버리기 위해서  
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물  
을 20~30분이상 끓여서 마  
셔야 소독살균이 잘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물을 끓일 때 그 일부는 수  
증기로 되어 날아난다. 그리  
나 물에 용해된 광물질, 무  
기염과 칼슘이온이나 마그  
네슘이온, 류산기온은, 아  
질산기온, 질산기온은 그

리고 중금속인 수은, 카드미  
움, 크롬, 비소, 망간, 동,  
아연 등 유해물질은 끓은 물  
속에 더 많아진다.

오래동안 끓는 과정에 아질  
산기온으로 환원되는데 아  
질산기온은아자가 바로 독성  
물질이다.

이런 독성물질은 사람의  
피속에서 철성분이 적은 헤  
모글로빈과 합쳐져서 산소를  
수송할수 없는 철성분이 많  
은 헤모글로빈으로 된다. 그러므로  
물을 오래 끓여서 마시지 말  
아야 한다.

본시기자

겨울철에 술에 취  
한것처럼 얼굴이 벌  
결게 달아오르는 사  
람들이 적지 않다.  
이것을 얼굴홍조증  
이라고 하는데 아  
름이 없다고 하여 그  
냥 내버려두면 심각  
한 후파를 가져올수  
있다.

얼굴피부의 모세  
혈관은 기온변화나  
호르몬분비 등 여  
러가지 원인에 의  
해 확장과 수축을  
반복하는데 이 과정  
에 확장된 모세혈관  
이 수축기능을 제대  
로 수행하지 못하면  
얼굴홍조증이 생기  
게 된다.

사람들이 스테로이드연고  
제를 탐용하면 피부가 얇아  
져 피질이 늘어난다. 이런  
사람들이 공기가 지나치게  
차거나 더운 곳에서 오래동  
안 피부를 노출시키고있으면  
피질이 보다 늘어나 얼굴홍  
조증이 생길수 있다.

얼굴홍조증을 그대로 내버  
려두면 붉어지는 부위가 점  
점 넓어져 코주위까지 퍼질  
수 있다.

얼굴홍조증을 막으려면 한  
증을 자주 하지 말고 피부연고  
제를 탐용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출거나 무더운 날에  
얼굴홍조증이 더욱 악화되  
기 쉬우므로 이때 피부보호  
관리에 보다 큰 관심을 돌려  
야 한다.

본시기자

먹물을 비누  
물을 조금 넣고  
고루 저은 다음 붓글씨를 쓰  
면 글자에서 광택이 나고 시

간이 오래 가도  
색갈이 날지 않  
는다.

본시기자

## 키토잔, 가시오갈피로 만든 천연고려약

의학과학원 방사선의  
학연구소에서 키토잔가  
시오갈피단알약을 개발  
하였다.

이 약은 갑각류(게,  
새우)의 껍질에서 분리  
정제하여 얻은 키토잔과  
가시오갈피나무의 뿌  
리줄기에서 추출한 유호  
성분으로 만든 효능높은  
천연고려약이다.

키토잔과 가시오갈피  
는 방사선에 의한 피해방  
지와 면역강화에 특효가  
있는것으로 알려져있다.

방사선의 학연구구의  
박학일, 강인숙을 비롯  
한 연구자들은 방사선과  
방사성물질에 의한 피해  
를 막을수 있는 키토잔  
과 가시오갈피를 주성분  
으로 하는 키토잔가시오  
갈피단알약을 제조하고  
그 약리학작용을 실험  
적으로 밝힌데 기초하여  
림상치료에 도입하였다.

키토잔가시오갈피단알  
약은 각종 암과 고혈압,  
뇌혈전, 심장혈관계통질

병, 결핵, 위 및 12지  
장궤양, 피부병, 중금속중  
독, 방사선피해마미 등  
수십여가지의 질병치료  
에 효과적이라고 한다.

림파세포의 활성화에  
의한 면역력의 강화, 방  
사선암치료로서 정상세  
포의 보호, 모세혈관확  
장에 의한 혈액순환의 활  
성화, 호르몬분비강화,  
중독성물질의 체외배설  
등 다양한 생리조절기  
능을 수행하는 이 약은  
건강유지를 위해 누구나  
섭취해야 할 필수약품으  
로 인정되고있다.

이 약을 사용해본 많  
은 사람들도 내분비기능  
이 활성화되고 체내에  
독성물질이 제거될뿐아  
니라 혈액순환이 개선되  
는 등 큰 효과를 보았다  
고 말하고있다.

효능높은 키토잔가시  
오갈피단알약에 대한 수  
요는 날이 갈수록 늘어  
나고있다.

본시기자

카프는 조선프로레타리아  
예술동맹의 략청이다.  
카프는 1923년에 이미 조  
직되었던 프로레타리아문학  
단체인 《염군사》를 모체로  
하여 1925년에 조직되었  
다.

처음에는 로동청  
년, 학생청년들로 염  
군합창단, 기악합주  
단(통소, 저대, 하모니카 등  
의 악기수로 구성)과 같은  
예술소조들을 조직하여 로  
동자들을 돕기 위한 의연금  
모집공연, 수해민구조공연,  
조선로동총동맹창립대회  
축하공연을 비롯한 로동대중  
을 위한 순회공연들을 진행  
하였다.

1668년 네베를  
란트에서 헨드릭  
하멜이 쓴 《조선  
유수기》가 조선을 제일먼저  
소개한 책이다.

1653년 1월에 떠나 일본  
나가사키로 가던 네베를란  
드배가 표류하여 그해 8월  
제주도에 와닿았다. 선  
원 50여명중 20명이 죽고

카프의 문예인들은 대중  
을 각성시키는데서 노래가  
노는 역할을 인식하고 창가  
와 민요를 비롯한 기성목조  
에 새로운 가사를 지어붙여  
보급하는 한편 아동음악보급

## 카프의 음악활동

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동  
예술대의 조직과 공연활동,  
학생소년들과 무산계급의 자  
녀들의 계급의식을 높여줄수  
있는 동요창작과 보급활동을  
적극적으로 벌리었다.

그중 음악의 계급성에 대  
한 논쟁이 기본을 이루었  
는데 음악평론가 김판이

1930년 12월에 발표한 논문  
《프로레타리아음악의 급  
무》, 1931년 1월에 발표한  
논문 《음악시각-1931년을  
맞이하면서》와 그후 그가  
카프소속의 극작가, 동요작  
곡가였던 신고송과  
작곡가 홍판과 등과  
《동아일보》, 《조  
선일보》의 지면을 통하여  
1931년 상반기간에 벌린 논  
쟁들이 그 실례들이다.

카프의 음악활동은 일제  
의 가혹한 탄압으로 하여 더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1935년에 카프가 강제해산당  
한것과 함께 끝을 맺었다.

본시기자

## 조선을 소개한 최초의 책

34명이 제주도에 상륙하였  
는데 후날 그들이 본국에  
돌아가서 자기들이 조선에  
서 보고들은 정치, 경제,  
풍습 등을 적어 책으로 출  
판한것이 바로 《조선유수  
기》이다.

다음으로 《조선  
국》은 1692년에  
네베를란드사람인  
니콜라스 위트덴이 쓴 《북  
미 파다르시》에 소개된 글  
이다. 이것 역시 조선에 억  
류되었던 사람들과 담화하면  
서 취재한 자료에 기초하여  
쓴것이다.

본시기자

리씨는 놀란 눈으로 령감  
을 쳐다보았다.

겨울김치를 온갖 정성을  
다 기울여 담근 다음부터 령  
감이 별로 김치타발을 하지  
않아 지성이면 감찜이라고  
이제는 한시를 놓았다고 속  
으로 기뻐했는데 아직도 우  
리 집 김치가 입에 맞지 않  
는단 말인가.

리씨가 이런 생각에 끌려  
얼흔이 나간듯 멍하니 서있  
자 령감은 섣뜻 움직이지 않  
는다고 화를 내며 그의 등을  
막 때렸었다.

《여보, 그 집 겨울김치를  
한번 맛보세요. 얼마나 맛  
이 좋은지 아마 하늘궁전의  
별미도 그 집에 왔다가 울  
고 갈 정도예요. 그 집 령감  
이 하도 김치김치하며 어찌  
나 안주인을 몰살해 굴었는  
지 글썽 안주인이 별별생각  
을 다 짜내서 김치를 담그었  
는데 그 맛이 정말 기가 막  
합니다. 내 인츰 갔다 오겠  
나이다.》

(아하, 우리 밤골에 나처럼  
김치를 즐기는 사람이 또  
있는가보군. 하긴 그러할 맛  
있는 김치를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을라구. 나도 빨리  
그 잘 담근 김치맛을 한번  
봐야겠군.)

황황히 발길을 돌려 집으  
로 되돌아온 최령감은 마치  
큰일이나 난것처럼 리씨를  
들볶아댔다.

《여보, 우리 동네 김치랑  
이네 김치가 어느 집이요?》  
《김치랑!? 듣다 처음인데  
요?》

《어서 병글 일어나 앉집  
쇠돌이 에미를 따라가우. 그  
리면 김치랑이네 맛있는 김  
치를 얻어올수 있소. 아 글  
썽 김치맛이 그렇게도 좋다  
고 하소.》

《예?!...》

《쇠돌이 에미, 우리 동네  
김치랑이네 집이 도대체 어  
느 집이요? 글썽 우리 령감  
이 그 집에 당장 가서 김치  
를 얻어오라기에... 뉘 쇠돌  
이 어머니가 그 집에 간다  
면서...》

《뉘, 뉘예요?...》  
허리가 끊어질듯 한참이  
나 웃어대던 쇠돌이 어머니  
는 그날 캐둑거리며 누가 들  
을세라 리씨의 귀에 대고 조  
용조용 말하였다.

《아니 지금껏 미친듯이  
김치타발을 하며 험남을 못



살게 구는 그 집 령감에게  
김치랑이란 별명이 붙은줄  
여직 모르시는구만요.》

《뉘, 뉘라구요. 그게 정  
말이요?》

두눈이 휘둥그레져 입을  
벌린채 아연해서 서있는 리  
씨에게 쇠돌이 어머니는 누  
군가가 그 집 령감에게 그런  
별명을 붙여주었다고 하면서  
이왕 이렇게 된바에는 그 령